

수시 1학기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문제*

소경희(蘇京姬)** · 천일석(千一石)*** · 임형렬(任炯烈)****

논문 요약

수시 1학기 모집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염두에 둔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수시 1학기 모집이 도입된 지 4년여가 지나고 수시 1학기 모집 비율이 대학 전체 모집 비율의 1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시 1학기 모집으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로서의 수시 1학기 모집 이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수시 1학기 모집의 도입 현황 및 수시 1학기 합격생에 대한 국가수준의 지도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며, 수시 1학기 모집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문제를 파악해 보았다. 수시 1학기 모집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 및 면담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는 수시 1학기 합격생의 2학기 학교 수업 참여 형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고등학교 내 프로그램 편성·운영 현황, 수시 1학기 합격생의 2학기 중 교외 프로그램 이용 현황, 2학기 수업 및 학급 운영 실태 등의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연구 결과, 수시 1학기 모집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수시 1학기 합격생이나 담당 교사, 수능 준비생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시 1학기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 관련 지침에 대한 경직된 해석 및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 수시 1학기, 대학입학전형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30-B00002)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사)

****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살레시오고등학교 교사)

I. 서론

학교교육에서 평가는 학생들을 위해 계획된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수업이 제공된 이후에 그것의 성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 시도되어 왔다. 평가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평가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방향 및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평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입학시험은 이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및 수업은 대학입학전형 방식에 의해 그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평가가 교육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대학입학전형이라는 하나의 평가방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실, 대학입학전형제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는 대학입학전형제도와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대학입학전형제도에 관심을 둘 필요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제도는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연장선상에 있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는 종래와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수시 1학기 모집'을 들 수 있다. 대학입학전형이라는 평가가 고등학교 교육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새로 도입된 수시 1학기 모집이라는 평가방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모종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대학입학전형제도로서의 수시 1학기 모집은 대학에 학생들을 수시로 모집할 수 있는 자율권을 허용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에 대학입학전형이 진행된다. 수시 1학기 모집에서 활용되는 전형자료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성적이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중에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을 하고 나면, 3학년 2학기 수업은 수시 1학기 합격생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기 쉽다. 그러나 현재 3학년 2학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수시 1학기 합격생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표기함) 준비생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학생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수시 1학기 모집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이 과정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3학년 2학기 학교 수업에서 의미를 찾기 힘들다. 수시 1학기 합격생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입학'이라는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대학이나 시·도 교육청, 혹은 고등학교 자체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제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개의 경우 현행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별도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수시 1학기 모집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¹⁾

이 연구는 수시 1학기 모집이라는 하나의 평가방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문제를 검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수시 1학기 모집이 도입된 지 4년여가 지나고 수시 1학기 모집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시 1학기 모집으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로서의 수시 1학기 모집 이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 즉 수시 1학기 모집이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주된 관심을 두었으며, 이 점에서 이 연구는 이론적이기보다는 매우 실제적인 성격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 목적을 위해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수시 1학기 도입 현황 및 수시 1학기 합격생에 대한 국가수준의 지도방안을 검토한다. 둘째, 수시 1학기 모집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수시 1학기 모집 이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문제를 탐색해 본다. 이러한 현장지향적 연구는 향후 수시 1학기 모집이라는 입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그 후속 대책을 수립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수시 1학기 도입 현황 및 수시 1학기 합격생에 대한 국가수준의 지도 방안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 1학기 모집’은 2002학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전형 방식 자체에 대한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모집 비율은 증가해 왔다. 수시 1학기 모집이 고등

1) 수시 1학기 모집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가 가능하나, 대학 측의 입장과 고등학교 측면의 입장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대학 측은 연중 수시 모집 및 다양한 전형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입시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특정 특기와 적성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분야의 학업 능력에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등학교 측에서는 수시 원서 작성에 따른 어려움과 더불어 수시 1학기 이후의 수업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어 수시 1학기 모집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보인다(양승실, 2004; 이미숙, 2001).

학교 교육과정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수시 1학기 모집의 도입 배경 및 현황, 그리고 이러한 수시 1학기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국가수준의 지도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시 1학기 모집의 도입 배경 및 현황

수시 1학기 모집은 1998년 2월 새로이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 의해 그 도입이 추진되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다양한 대학입학전형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염두에 둔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교육부, 1998)을 발표한 바 있다.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입학선발과정을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전형에 의한 선발로 전환하고, 입학전형 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학생 선발에 관한 대학 자율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이종재, 1999; 강현석 외, 2000). 종래 대학입학은 시험 성적만을 유일한 전형 기준으로 삼아왔으며,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오직 시험 준비라는 획일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은 시험이 아닌 전형에 의한 선발을 강조함으로써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과 전형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형에 의한 선발은 대학 측에는 다양한 기준과 방법에 의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며, 고등학교에는 시험 준비 중심만이 아닌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시 1학기 모집은 바로 이러한 대학입학을 위한 다양한 전형 방법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다. 즉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이 학생 선발을 특정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선발할 수도 있다는 취지 하에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중 수시모집은 3학년 1학기말과 2학기말에 각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수시 1학기 모집은 3학년 1학기말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써 도입된 것이다.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전형자료는 대학별로 다르나, 대체로 일반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면접·구술, 논술고사 등이며, 주요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료만 활용된다. 특별전형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이외에도 특별전형의 특성에 맞는 경력, 자격, 입상, 실기, 추천, 자기소개 등의 자료가 활용된다. 따라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의 경우,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은 대학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시 1학기 모집은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10%내로 그 비

율을 제한한 바 있다. 따라서 2002학년도에는 4년제 대학의 33.3%에 해당하는 64개 대학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2.7%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시 1학기로 모집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왔다. 수시 1학기 모집 현황을 학년도별로 제시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수시 1학기 모집 대학 수 및 모집 인원 현황 ()안은 %

학년도	전체 대학 수	수시 1학기 모집 대학 수	전체 모집 인원	수시 1학기 모집 인원
2002	192	64(33.3)	373,884	10,118(2.7)
2003	192	66(34.4)	384,026	12,872(3.4)
2004	199	92(46.2)	395,703	20,705(5.2)
2005	200	102(51)	396,209	24,361(6.1)
2006	201	114(56.4)	389,584	27,587(7.1)

<표 1>에 따르면, 수시 1학기 모집은 점차 확대되어 2006학년도의 경우, 전체 대학의 56.4%에 해당하는 114개 대학에서 총 모집계획 인원의 7.1%인 27,587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05학년도부터는 4년제 대학만이 아니라, 전문대학에서도 수시 1학기 모집을 가능하도록 하여 3학년 1학기에 대학 입학이 확정된 학생의 비율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2006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한 전체 모집계획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73,333명이 수시 1학기 모집에 의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5).

이와 같이 수시 1학기 모집은 참여 대학 수 및 모집 인원에 있어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수시 1학기 모집이 확대되면서 대학은 다양한 전형요소를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고등학교 편에서는 미리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2. 수시 1학기 합격생에 대한 국가수준의 지도방안

수시 1학기 모집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말에 진행된다. 따라서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들은 3학년 1학기말에 대학입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3학년 2학기부터는 대학입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시 1학기 합격생들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3학년 2학기는 수시 2학기나 정시 모집에 대응한 대학입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대학입학이 확정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2학기 수업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에 따라 국가에서는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별도의 지도 방안을 수립하여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있다. 즉 국가는 수시모집에 응시하여 대학입학이 확정된 학생과 정시모집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혼재된 상태에서의 수업진행 및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수시모집 입학확정자 지도 방안'(교육인적자원부, 2004a)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의 수시 1학기 합격생 지도의 기본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시 1학기 합격생들에게 2학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게 하되, 희망자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이수를 위한 일정 기준의 2학기 정규 수업 및 평가에는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의 운영 범위는 대학에서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학교가 계획한 프로그램 참가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에 입학확정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을 국가가 수합하여 시·도 교육청에 보내주고 이를 학교에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수준의 우수 지도사례(교육인적자원부, 2004b)를 학교에 배포하여 학교수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²⁾ 대학, 시·도 교육청, 학교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관 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되는 것으로서, 학생 편에서 보면 체계적인 참여가 어렵게 되어 있었다. 즉 운영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운영 장소, 학점 인정 여부 등에 일관된 틀이 없으며, 프로그램 내용 간에도 중복이 많았다. 또한 대개의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기고 있었다.

Ⅲ. 수시 1학기 모집 이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현재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해 전체 모집 인원의 10%에 육박하는

2) 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2004c)가 발표한 '2005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 대학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보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2개 교육청을 선택하여 이들 교육청에서 계획한 수시 1학기 모집 입학확정자 지도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문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 운영과는 다를 수 있다.

학생들이 수시 1학기 모집에 의해 대학 입학이 확정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은 대학입학이 확정된 학생과,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혼재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시 1학기 모집 이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수시 1학기 이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 및 면담을 시도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배출해낸 전국 소재 고등학교 교사 4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³⁾ 면담은 전국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합격생 12명, 수시 2학기 혹은 정시 준비생(즉, 수능 준비생) 9명, 수시 1학기 합격생의 담임 교사 12명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⁴⁾ 설문 조사 및 면담의 결과 가운데 일부를 수시 1학기 합격생의 2학기 학교 수업 참여 형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고등학교 내 프로그램 편성·운영 현황, 수시 1학기 합격생의 2학기 중 교외 프로그램 이용 현황, 2학기 수업 및 학급 운영 실태 등의 측면에서 간략히 제시해 본다.

1. 수시 1학기 합격생의 2학기 학교 수업 참여 형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3학년 1학기 때 이미 대학입학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대학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2학기 정규 수업이 그들의 요구에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2학기 모든 정규 수업에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경우(73.5%)가 많았다. 즉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시 1학기 합격생들도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2학기 정규 수업을 듣고 그에 따른 중간 및 기말 시험에 응하도록 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오후 시간에 학원 수강이나

3) 설문 조사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배출해낸 전국 소재 고등학교 교사 4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대상자 415명의 지역별 구성은 서울 및 인천 지역 115명(27.7%), 수도권 소재 시·군 지역 71명(17.1%), 지방 소재 광역시 지역 102명(24.6%), 지방 소재 시·군 지역 127명(30.6%)이다.

4) 분석 대상자는 초기에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합격생 12명, 수시 2학기 혹은 정시 준비생(즉, 수능 준비생) 12명, 그리고 수시 1학기 합격생의 담임 교사 12명 등 총 36명으로 설계하였으며, 각 집단별로 수도권에서 4명, 비수도권에서 8명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료 수집은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이 끝난 이후인 2004년 10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자료수집 시기가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기간이었던 관계로 수능 준비 학생의 경우, 일부 학생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불성실하여 수도권 3명과 비수도권 6명 등 9명 학생의 자료만이 수집되었다. 그 결과 총 33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평생학습관의 개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학교에 편성된 교과목의 시험(중간 및 기말고사)은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치르도록 하고 있었다.

출석은 정규 수업을 모두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학원 수강이나 예비대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4교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원 수강의 경우는 수강증으로 출석을 대신한다. 또한 합격생들을 평생학습관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간에 관계없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간고사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고사 기간에 예비대학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결 처리하여 기말고사 성적을 100% 반영시켜주고 있다. (수도권 A고등학교 교사)

이와 같이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대학입학이 확정된 이후에도 고등학교로부터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2학기 정규 수업 및 그에 따른 평가에 참여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2학기에 대부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출석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은 2학기에 진행된 수업을 충실하게 듣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의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2학기에도 매일 학교에 출석합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는 수업이 수능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제가 따로 공부하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거나 수능 준비로 인해 보지 못했던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합격한 대학에서는 합격생들을 위해 영어반, 워크샵, 컴퓨터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해 놓았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들 중 영어반에 참가하여 고등학교 수업은 3교시까지 하고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소재 B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

학교는 매일 친구들과 똑같은 시간에 등교해서 출석합니다. 총 수업 시간의 반 정도는 교실에 앉아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도서관에서 선생님 일을 도와 드리거나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F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

이와 같이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언뜻 보기에 2학기 때에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교에 출석하기 때문에 2학기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은 정규 수업을 충실히 듣기보다는 개인적인 관심 분야를 공부하거나 교외의 대학 프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은 교육인적자원부(2004c)가 발표한 '2005 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 대학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보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시·도 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은 2개 교육청을 선택하여 이들 교육청에서 계획한 수시 1학기 모집 입학확정자 지도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문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 운영과는 다를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2학기 정규 수업에 해당하는 중간 및 기말 시험에는 원칙적으로 응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참여한 예비대학의 프로그램이 학교의 중간고사와 겹치다 보니 이를 해결하고자 고등학교에서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중간고사 시험은 보지 않게 해주었고 대신 기말고사의 성적을 2학기 시험성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수도권 소재 B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

수업을 듣지 않아도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봤구요, 모의고사 보는 날에는 학교에 오지 않거나 아침에 잠깐 왔다가 다시 갑니다. (비수도권 소재 F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

이와 같이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2학기에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출석하고 있으나, 정규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기보다는 출석이라는 ‘형식’만 갖추고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관심 분야를 공부하거나 교외의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학교의 정규 평가에는 역시 형식적으로 임해야만 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별도의 교내 프로그램 편성·운영 현황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고등학교 내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9.6%만이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아서(36.5%),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28.3%), 과중한 업무로 마땅한 지도교사가 없어서(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과의 면담에 의하면,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별도의 교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학년도 수시 1학기 합격생의 숫자는 2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에서 취했던 조치는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맡겨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2005학년도에는 수시 1학기 합격생이 18명이나 되었음에도 수시 1학기 합격생에 대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동안 교실 안이나 수업 분위기에 방해된다 고 학생들을 복도에 방치했었다. (비수도권 A고등학교 교사)

수시 1학기 합격생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자신들을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 있다. 대부분 수시 1학기 합격생은 정규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공부를 하거나 오후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개인적인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비수도권 소재 A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가톨릭 신부가 있어서 신부님의 지도에 따라 별도의 교육활동을 하기도 하나, 이러한 활동이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아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교실에 앉아 있으면 수업 분위기를 망친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 전까지는 복도에 앉아 있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가, 얼마 전부터는 수시 1학기 합격생들만 신부님 사무실에 모여서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다. 신부님과 같이 시간표를 짜서 독서도 하고 한자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한다. 산책하는 시간도 있고 봉사활동도 한다.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우리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비수도권 소재 A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

이와 같이 수시 1학기 합격생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도 체계적으로 미리 마련된 것이기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만족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시 1학기 합격생의 2학기 중 교외 프로그램 이용 현황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생에게 2학기 중 교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51.8% 정도였다. 교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정규 수업 시간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54.4%로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방과 후 시간에 허용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또한 교외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수시 1학기 합격생에게 교외 프로그램을 허용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교외 프로그램으로 인해 2학기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어렵기 때문'(49%), '주변에 이용할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없기 때문'(24.5%), '학생 지도의 어려움 때문'(22%)이라는 순으로 나타났다.

면담 결과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학교 외부 프로그램은 합격한 대학에서 개설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합격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는 영어나 컴퓨터 강좌를 많이 듣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학교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양필수과목을 배웠다. 매우 만족한다. 호지부지 시간을 보낼 수 없게 잘 짜여져 알찼다. 또한 더 빨리 대학 제도를 익히고 다른 학과의 학생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 (비수도권 소재 E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

앞으로 다니게 될 대학에서 미리 합격생들에게 학점 인정이 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영어 반을 하게 되었다. 회화와 읽고 쓰는 수업을 두 분의 외국인 선생님께 듣고 있는데 외부 학원 못지않게 수업 진행을 잘 해주시며 가격 또한 저렴했다. (수도권 소재 A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

대학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체계적이며 내실 있게 운영되는 편으로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강생들이 대학에 미리 합격한 예비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의 경우, 지역적 여건 때문에 합격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합격한 학교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해 6학점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지역이 다른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했다. 다음에는 이런 지역적 여건도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비수도권 소재 B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

비수도권 소재 B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이 이야기 했듯이, 합격한 대학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거리가 먼 지방에 살고 있어서 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합격한 대학이 소재한 서울에 마땅히 머무를 곳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의 정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4. 2학기 수업 및 학급 운영 실태

2학기 수업 및 학급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 수시 1학기 합격생, 수능 준비생들 모두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경우는 수업에 있어서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교사들에 의하면,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이미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2학기 때 수업 참여도 및 학습 열의가 많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수업 분위기가 흐려져 수능 준비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적절한 지도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수시 1학기 합격

생이 많은 학급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수시 1학기 합격생이 수업 참여도와 학습 열의가 많이 감소하여 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 반에 수시 1학기 합격생이 많을수록 학급 운영은 더욱 어려운 것 같다. 아직 합격하지 못한 일반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시 합격생으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 일반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시 1학기 합격생의 사고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강해 정상적인 수업에 잘 참여하라는 선생님의 지도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 C고등학교 교사)

또한 교사들에 의하면,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며, 대다수 학생과 다른 입장에서 학습에 임하게 됨으로 인해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학습 의욕이 더욱 저하되기도 한다.

수시 1학기 합격생 인원이 극소수이므로 학급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별로 없다. 다만 학생이 처음에는 합격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정규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개인 자습만을 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학생들과의 이질감을 느낀 상태에서의 개인 자습이라 큰 효과를 얻을 수 없고 학습에 대한 욕구와 효율성도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소재 D고등학교 교사)

수시 1학기 합격생의 경우는 선생님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시 1학기 합격생은 정규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신들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같은 반에서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요. 말은 안 해도 친구들 역시 제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을 것이라 생각해요.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더욱 좋지 않아요. 어쨌든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은근슬쩍 수업 중에 고교 내신은 평생 남는다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느낌이 수시만 합격하면 다냐고 하시는 듯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렇지만 어정쩡하게 수업 참여하는 척 하는 것도 비생산적이고, 당당하게 딴 짓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요. 숙제라던가 수행평가 또는 새 교재 준비에도 불성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선생님들께 대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지 걱정도 되요. (비수도권 B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

합격 후 같은 반 친구들과 처음에는 한 교실에 앉아있기가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이 수능 대비책을 보고 있을 때 다른 책을 보고 있다는 것도 친구들에게는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친구

들에게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수능 공부를 함께 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수업 참가보다는 개인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차피 기말고사로 인해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도권 소재 B고등학교 수시 1학기 합격생)

이와 같이 수시 1학기 합격생은 2학기 정규 수업에 참여하기는 하나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능 준비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별도의 교내 프로그램이 없어서 정규 수업 시간에 다른 책을 꺼내놓고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눈치 보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더군다나 정규 수업에 충실히 임하지 않아도 평가에는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규 수업 시간에 수시 1학기 학생의 입장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수시 1학기 합격생과 동일한 수업 상황에 놓여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수능 준비생들은 대부분 수업 시간에 수시 1학기 합격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자신들의 공부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의 대화 소재나 공부 내용, 등교 시간 등이 수능을 준비하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였다.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수능 준비생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다. 그래서 TV와 인터넷을 장시간 접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다. 장시간 접한 그 정보들을 쉬는 시간에 마구 꺼내 놓는다. 대학 입학이나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면 다행이지만 주로 하는 이야기는 연예인에 관한 것이며 워낙 큰 소리로 이야기하므로 조용히 쉬거나 공부하는 대다수의 수능 준비생이 불편을 겪는다. (수도권 소재 C고등학교 수능 준비생)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우리와 같은 고3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애들이 자유로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는 모습에서 조금의 부러움과 머리에 혼란이 와요. 친한 친구이기에 같이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마음을 부여잡아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등교시간이 달라 수업 중에 들어오거나 EBS 시청시간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공부에 집중이 잘 안되요. 늦게 오고 일찍 가니까 교실에 빈자리 있는 거 봐도 마음이 좀 그래요. 그냥 차라리 애들이 학교 안나오고 자신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교실에서 책상을 뒤로 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요. (비수도권 A고등학교 수능 준비생)

이상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볼 때, 3학년 2학기 수업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에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합격생 본인들에게도 적절하지 않

을 뿐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도 2학기 수업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적절한 지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종합 및 논의

위에서 제시한 수시 1학기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고등학교 교사, 수시 1학기 합격생, 그리고 수능 준비생 측면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심으로 종합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시 1학기 합격생들도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정규 수업 및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설사 정규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학원 수강이나 대학 및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2학기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에 임해야만 한다.

둘째, 고등학교에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별도의 교내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일부 편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기 보다는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이미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기 때문에 2학기 수업에서 수업 참여도 및 학습 열의가 많이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급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넷째, 학교별로 볼 때, 수시 1학기 합격생은 아직 소수이며, 학교단위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 확보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음으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형식상으로는 2학기에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출석하고 있으나, 정규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기보다는 출석이라는 형식만 갖추고 수업 시간에 개인적인 관심 분야를 공부하거나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학교의 정규 평가에는 형식적으로 임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고등학교에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교내 프로그램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합격생들은 2학기 수업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셋째,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합격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가 많으나, 합격한 대학과 거리적으로 먼 지역에 사는 합격생의 경우에는 여건상 합격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넷째,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2학기 정규 수업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능 준비를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자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편, 수능 준비생은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대화 소재나 공부 내용, 등학교 시간 등의 측면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2학기 수업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자신들의 공부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 수시 1학기 합격생, 그리고 수능 준비생 모두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2학기 수업에서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정규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 분석 결과는 수시 1학기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보거나 아니면 수시 1학기 모집 정책 자체에 대한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V. 수시 1학기 모집 이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문제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수시 1학기 모집이 끝난 이후의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수시 1학기에 합격하여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큰 관심이 없는 학생들과 수능 준비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하는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받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이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수시 1학기 합격생들에게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 1학기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수시 1학기 합격생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은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고등학교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향후 수시 1학기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데 주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와 관련된 문제

앞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와 관련된 지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2004a)는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별도의 지도 방안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되, 희망자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 방안에서는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이수를 위한 일정 기준의 2학기 정규 수업 및 평가에는 참여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물론, 수시 1학기 합격생들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②항에 따르면,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교육법전편찬회, 2005: 39)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3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3분의 2이상을 학교에 출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①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교육법전편찬회, 2005: 39)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년의 수료 및 졸업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고 평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시 1학기 합격생도 3학년 2학기에 편성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수시 1학기 합격생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수능 준비생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2학기 교과목을 수시 1학기 합격생도 동일하게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시 1학기 합격생과 수능 준비생에게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실제로는 거의 모든 교과에 있어서 이미 학습한 내용에 대한 복습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⁵⁾ 2학기 수업은 수시 1학기 합격생들에게는 교육내용상으로 의미가 없을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 제공된 교육과정은 수시 1학기 합격생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학교가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만 한다면 수시 1학기 합격생 대상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이 발표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2005년 7월)에 의하면, 이 모의평가의 영역별 및 과목별 세부 출제범위는 '전 범위'로 되어 있다. 이 점은 고등학교에서 3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학기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이 이미 학습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육관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등학교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해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일부 있다. 예컨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⑤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법전편찬회, 2005: 39). 또한 교육기본법 제10조 ②항에 의하면,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교육법전편찬회, 2005: 9)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사회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교육부, 1997: 20)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수시 1학기 합격생이 교외 체험학습을 할 경우 이를 특정 교과목의 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수시 1학기 모집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성격의 규정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3학년에 도입된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들에게 적합한 교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과 관심의 개인차가 고려될 수 있도록 구성된 ‘개인별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체제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6).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이란 수시 1학기 합격생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관심에 따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이수라는 지침은 좀 더 융통적인 방식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을 위한 좀 더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 예컨대 졸업이수요건이나 학교외 학습장에서의 학습 인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수시 1학기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을 위한 교내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해서 대학이나 시·도 교육청 등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2005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생 대학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보도자료(교육인적자원부, 2004c)’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을 실시하는 102개 대학 중에서 50개 대학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에서 개설한 전체 프로그램 수는 158개이며, 주로 2학기 및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8주 이상까지 되는 것도 있었으며, 대학별·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설한 50개 대학 중에서 36개 대학에서 학점인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158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97개였다. 개설된 158개 전체 프로그램 및 학점인정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한 대학의 프로그램 수 및 운영 기간

구분	1주 이내	1주~2주	2주~4주	4주~8주	8주 이상	합 계
전체 개설 프로그램 수 (학점인정 프로그램 수)	51 (9)	8 (5)	5 (5)	29 (25)	65 (53)	158 (97)

<표 2>에 따르면 개설된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8주 이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6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주 이내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학점이 인정되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8주 이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97개 중 53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주~8주 단위 프로그램이었다.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해 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체 158개 프로그램 가운데 예비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36개이고, 나머지 122개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학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15개 정도 있었다. 정규 교육 프로그램은 어학 관련 프로그램, 교양 관련 프로그램,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표 3>과 같다.

<표 3>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해 대학에서 개설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분	교양 관련	어학 관련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 수 (비율)	58 (47.6%)	42 (34.4%)	22 (18.0%)
프로그램 내용	문학, 독서, 역사, 도서관 이용, 한국 문화, 국제 교류, 언어, 철학, 수학, 법학, 골프 등	외국어 회화, TOEFL, TOEIC, 실용영어, 외국 문화, 교양영어 강독, 기초 영문법 등	인터넷, 애니메이션, 컴퓨터 개론 및 실습, 정보인증 대비 MOUS 교육과정, 웹디자인, 포토샵 등

한편, 시·도 교육청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은 교육청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도 교육청 자체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수련기관 등을 통한 단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우수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었다. ○○시 교육청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을 위해 마련한 지

도계획에 나타난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시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프로그램 사례

구분	운영 기관	운영 기간	운영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	시·도 교육청	2004. 11.	고3 청소년 희망 만들기(체험·문화·체육마당)
직속기관 운영 프로그램	○○기념회관	.	문화강좌(서예, 미술, 영어회화), 독서회 등
	○○문화회관	.	컴퓨터, 외국어 회화, 요리, 민요, 서예 등 24강좌
	○○문화회관	.	생활영어, 건강관리, 컴퓨터 등
	○○도서관	.	외국어 회화, 서예
	○○도서관	.	한자, 영어회화, 예절 등

<표 4>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을 위해 자체 계획하거나 지역의 직속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수합하여 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체로 볼 때,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마련한 지도 계획에 제시된 프로그램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시·도 교육청은 자체 혹은 직속기관 수준에서 대학수학을 위한 기본 도구 교과와 관련한 외국어, 한자, 컴퓨터 과목 등을 개설하거나, 교양, 문화, 취미 강좌와 관련한 내용들을 개설하고 있었다. 운영 기간은 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2학기 및 방학 기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도 있으나, 아예 운영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해당 기관과 운영 프로그램만을 제시하여 학교가 활용하는데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시·도 교육청도 있었다.

둘째, 수련기관 등을 통한 단체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우수 평생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운영 기간을 명시해주지 않고, 활용 가능한 기관을 알려주는데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보다 구체적이지 못하여 학교 및 학생들이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대학이나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들은 주관 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학생 편에서 보면 체계적인 참여가 어렵다. 즉 운영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운영 장소, 학점 인정 여부 등에 있어서 일관된 틀이 없으며, 프로그램 내용 간에도 중복이 많다.

먼저,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단위가 운영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고, 구체적인 시간 운영 정보도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앞서 제시한 대학별 프로그램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 단위가 기관에 따라 짧게는 한 시간에서부터 길게는 8주

이상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기간이 문서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더군다나 8주 이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것이 한 주에 몇 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영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관련하여, 운영 기관에 직접 가서 참석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기관과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의 이용에 제한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제시한 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만이 사이버 강좌로 개설되고 있으며, 나머지 프로그램은 해당 대학에 직접 가야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학에 합격한 지방 학생들은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셋째, 학점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운영 기관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나 학점 인정을 위한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학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중에서 학점을 인정한 프로그램은 61.1% 정도였으나,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정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즉 학점 인정을 위한 이수 시간, 성적 산출 방법 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때문에 개설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즉 운영 기관의 입장에서 기관의 편의와 필요에 따른 프로그램을 기관 편의에 따른 시기에 개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요컨대 수시 1학기 모집 이후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면, 고등학교에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한다고 해도 이는 실제로 의미 있게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들이 3학년 2학기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주로 우수한 학생들에게 한정된 프로그램이긴 하나,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AP(Advanced Placement) 프로그램이나 일본의 일부 대학에서 최근 도입하고 있는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등(정광희, 2004)과 유사한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이 주관 기관이 되어 여러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형식, 내용, 그리고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로 도입된 수시 1학기 모집 이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문제를 탐색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이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말에 대학입학이 확정된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을 포함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 문제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6학년도 기준으로 볼 때, 수시 1학기 모집 비율은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한 전체 모집계획 인원의 10%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 인원에 해당하는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3학년 1학기 말에 대학 입학이 확정된 이후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즉 수시 1학기 합격생들은,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수능 준비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에 전념하고 있는 3학년 2학기 수업에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시 1학기 합격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수업을 해야 하는 수능 준비생 모두에게 수시 1학기 합격생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시 1학기 도입의 취지 중의 하나가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즉 획일적인 시험 준비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입학전형이라는 평가방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곤 한다. 대학입학전형제도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별개로 결정되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본래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개편된 대입시에 맞추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학제도간에 밀접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개편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수시 1학기 모집이라는 새로운 대학입학전형제도도 1997년에 이미 공포된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시 1학기 모집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것은 예상될 수 있는 점이었다. 그러나 수시 1학기 모집이 도입된 지 4년여가 지나고 수시 1학기 모집 비율이 대학 전체 모집 비율의 1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수시 1학기 모집으로 인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다. 이 점에서 이 연구는 대학입학전형제도로써의 수시 1학기 모집 이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이 연구를 토대로 수시 1학기

모집 정책 자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검토되길 바라며, 나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탐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석, 백정하(2000).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이해와 비교 분석. *고등교육연구*, 11(1), 197-233.
- 교육법전편찬회(2005).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 교육부(1997). *교육과정*.
- _____ (1998).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 교육인적자원부(2002).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 _____ (2004a). 2005 대입 수시모집 입학확정자 지도 방안.
- _____ (2004b). 2005 대입 수시모집 입학확정자를 위한 학교 지도계획 우수 사례.
- _____ (2004c). 2005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대학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내 보도자료.
- 양승실(2004). 2002이후 새 대입제도가 고교와 대학에 미친 영향 분석. *지방자치*, 190, 80-85.
- 이미숙(2001). 대입 수시모집, 이대로는 안된다. *정경뉴스*, 20, 248-251.
- 이종재(1999).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혁방안. *교육행정학연구*, 17(1), 9-22.
- 정광희(2004). 일본의 대입제도 - 학생 선발 방법의 다양화와 그 사회적 맥락이 주는 시사점 -. KEDI 8년 연구: 「고교-대학 연계」를 통한 대입전형 연구 1차 연도 세미나 종합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 2004-6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5).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05). 2006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

* 논문접수 2005년 10월 18일 / 1차 심사 2005년 11월 21일 / 2차 심사 2005년 12월 2일

* 소경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교육과정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함.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의 객원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박사후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임. 주요 저서로는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정개발 등이 있음.

*e-mail: sohee@snu.ac.kr

* 천일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임

* e-mail: cis0971@hanmail.net

* 임형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살레시오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임.

* e-mail: lim93@dreamwiz.com

Abstract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urriculum after 'the 1st advanced university admission examination': it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So, Kyunghee** · Chun, Ilsuk*** · Lim, Hyongryol****

This study explor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mplementation of high school curriculum after 'the 1st advanced university admission examination' which has been introduced as a new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policy. For the study, several research problems were reviewed and discussed.

First, this study reviewed the introduction background and implementation situation of the 1st advanced university admission examination policy and examined educational programs for students who were admitted to university.

Second, this study survey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for the implementation of high school curriculum after 'the 1st advanced university admission examination'.

Third, some problems for the organization of high school curriculum after 'the 1st advanced university admission examination' were investigated and discussed.

As a result,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curriculum for students who were admitted to university needed to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curriculum for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the regula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Also, this study suggested clos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4-030-B00002)

**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sun University Girls' High School

**** Salesian High School

connectedness between high school curriculum and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policy.

Key words: the 1st advanced university admission examinatio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policy, high school curriculum